

2004년 7월 디지털전자 수출입동향

전자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우 성 제

1. 전자산업 수출입 동향 분석

- ▶ '04.7월 수출은 798억불(전년동월대비 30.6% 증가)
- ▶ '04.7월 수입은 435억불(전년동월대비 21.6% 증가)
- ▶ '04.7월 무역수지는 363억불 흑자(전년동월대비 43.3% 증가)

□ '04.7월 전자산업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0.6% 증가한 79억8천만불을 기록하면서, 작년 7월부터 연13개월째 20% 이상의 높은 성장 실적을 시현했다.

※ 전자산업수출추이(억불, 전년동월대비 %) : ('03.7월) 61.1(22.5) → (8월) 63.0(23.5) → (9월) 69.4(31.5) → (10월) 77.2(31.5) → (11월) 74.0(26.9) → (12월) 74.8(40.3) → ('04.1월) 71.8(31.7) → (2월) 75.3(50.3) → (3월) 82.5(43.1) → (4월) 80.2(45.4) → (5월) 83.0(56.3) → (6월) 82.4(46.8) → (7월) 79.8(30.6)

○ 수출 증가는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지속과 국내기업의 고성능제품 중심 마케팅 성공에 힘입은 바가 크고,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공장 및 중국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부품공급 확대가 크게 기여했으나, 국제금리 상승, 고유가, 중국 긴축정책 등 악재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통계기술적인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칼라TV 부품(2억5천만불, 104.2%)를 비롯, 무선통신기기부품(4억3천만불, 100.0%), 액정디바이스(8천9백만불, 91.6%) 등이 크게 증가하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폴란드(4천8백만불, 442.0%)와 브라질(1억1천만불, 208.1%), 오스트리아(3천9백만불, 114.0%) 등으로 수출이 급증하였다.

□ '04.7월 전자산업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한 43억5천만불을 기록, 수입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전자산업수입추이(억불, 전년동월대비 %) : ('03.7월) 35.7(12.1) → (8월) 34.9(9.8) → (9월) 38.8(15.1) → (10월) 43.2(21.9) → (11월) 40.5(11.7) → (12월) 44.5(22.8) → ('04.1월) 38.2(17.4) → (2월) 40.6(24.6) → (3월) 45.8(16.7) → (4월) 44.3(24.7) → (5월) 41.3(27.0) → (6월) 43.6(27.8) → (7월) 43.5(21.6)

○ 수출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가전, 휴대용 전화기 등에 소요되는 고품질, 고성능의 핵심부품 소재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 대일 전자산업 무역적자 확대 ('03.7월 : 4억2천만불 → '04.7월 : 5억2천만불)

〈디지털전자 무역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4년		2003년			
	1~6월	7월	1~7월	7월	1~7월	
수 출	전체산업	123,298 (38.4)	21,354 (38.4)	144,652 (38.4)	15,432 (15.2)	104,521 (17.0)
	디지털전자	47,542 (45.5)	7,982 (30.6)	55,523 (43.1)	6,111 (22.5)	38,793 (15.0)
수 입	전체산업	108,021 (25.7)	18,376 (23.3)	126,397 (25.4)	14,898 (14.3)	100,831 (20.0)
	디지털전자	25,391 (22.9)	4,351 (21.6)	29,742 (22.7)	3,577 (12.1)	24,238 (18.5)
무역수지	전체산업	15,277	2,978	18,255	534	3,689
	디지털전자	22,151	3,631	25,781	2,534	14,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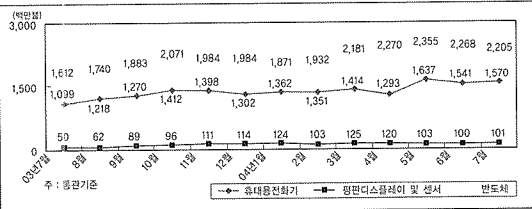
□ '04.7월 전자산업 무역수지는 36억3천만불로 전년동월대비 43.3% 증가 했다.

※ 전자산업 무역흑자 증감률(%) : ('03.3/4) 49.4 → (4/4) 56.8 → ('04.1/4) 81.8 → (2/4) 87.0 → (5월) 108.8 → (6월) 74.7 → (7월) 43.3

2.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 '04.7월 전자산업 수출은 완제품에서는 휴대용전화기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부품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등 디지털 기기용 관련제품이 고성장세를 지속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1억1백만불(전년동월대비 102.0% 증가)

○ 중국수출(2천4백만불, 379.6%)이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디지털전자산업이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발전함에 따라 고급형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가 급팽창한 때문이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도 폭발적인 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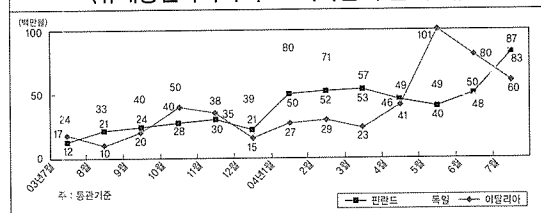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출추이(백만불, 전년동월대비 %): ('03.7월) 50(116.2) → (8월) 62(223.0) → (9월) 89(380.7) → (10월) 96(274.7) → (11월) 111(275.4) → (12월) 114(374.8) → ('04.1월) 124(372.3) → (2월) 103(288.4) → (3월) 125(259.7) → (4월) 120(220.4) → (5월) 103(110.8) → (6월) 100(132.6) → (7월) 101(102.0)

□ 휴대용전화기 : 15억7천만불(전년동월대비 42.9% 증가)

○ 휴대용전화기는 세계적으로 3G 통신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주요시장에서 멀티미디어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품질력과 디자인 및 브랜드인지도 등이 현지 소비자들의 감성에 크게 어필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였다.

※ 휴대용전화기 수출추이(백만불, 전년동월대비 %): ('03.7월) 1,099(49.4) → (8월) 1,218(38.1) → (9월) 1,270(34.6) → (10월) 1,412(31.2) → (11월) 1,398(20.7) → (12월) 1,302(45.7) → ('04.1월) 1,362(59.7) → (2월) 1,351(41.5) → (3월) 1,414(29.8) → (4월) 1,293(38.9) → (5월) 1,637(94.8) → (6월) 1,541(55.8) → (7월) 1,570(42.9)

〈휴대용전화기의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 세계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유럽형 GSM방식 휴대폰 수출이 집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대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반도체 : 22억5백만불(전년동월대비 36.8% 증가)

○ 컴퓨터 등 디지털제품에 대한 수요가 고집적 고가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DRAM 등 주요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휴대폰을 비롯하여 디지털카메라, MP3P 등 신 디지털기기에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플래시메모리도 고집적 제품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반도체 수요증가세 지속하였다.

※ 반도체 수출추이(백만불, 전년동월대비 %): ('03.7월) 1,612(15.1) → (8월) 1,740(18.9) → (9월) 1,883(37.4) → (10월) 2,071(32.2) → (11월) 1,984(23.0) → (12월) 1,985(36.3) → ('04.1월) 1,871(16.6) → (2월) 1,932(67.1) → (3월) 2,181(65.5) → (4월) 2,270(67.9) → (5월) 2,355(69.6) → (6월) 2,268(57.3) → (7월) 2,205(36.8)

※ DDR256M(\$/개) : ('03.1/4) 4.21 → (2/4) 3.35 → (3/4) 4.50 → (4/4) 4.11 → ('04.1/4) 4.15 → (4월) 5.81 → (5월) 4.98 → (6월) 4.65 → (7월) 4.72

- 전자제품 생산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만(3억9천만불, 94.7%)과 중국(2억6천만불, 94.7%)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2위 수출국인 미국(3억8천만불, 49.8%)으로의 수출도 상당한 증가율을 시현했다.

3. 평가 및 전망

□ '04.7월 수출입 실적 평가

2위 수출국인 중국(14억9백만불, 40.7%)으로의 수출은 우리기업의 현지공장 및 중국 로컬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전자부품(4억7천만불, 66.9%)의 공급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경기조절 정책과는 무관하게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부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15억2천만불, 32.8%)은 디지털전자 전체수출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시현했고, 독일(4억1천만불, 67.9%), 핀란드(1억4천만불, 93.1%), 이탈리아(8천9백만불, 96.6%) 등 유럽국가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6억9백만불, 12.8%)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통구조 문제, 중국 등 경쟁국들의 시장점유율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국내기업의 중국(7억2천만불, 45.6%)의 현지공장 생산제품과 중국 로컬업체로부터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호전된 전자부품 소재

및 가전제품에 대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TV, 휴대용전화기에 장착되는 핵심부품의 경우 일본(11억3천만불, 17.3%), 미국(7억8천만불, 10.3%) 등에서 증가했다.

□ '04.8월 수출입 전망

수출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기조절정책, 고유가현상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대내적으로는 노사관계 불안 등 어려움은 있지만 세계경기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수준의 수출 증가세를 시현할것으로 예상되나,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증한데 따른 통계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소비재 상품의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전자 메이커들이 해외시장 확대에 진력하고 있음에 따라, 고성능, 고품질의 외산 핵심 부품과 저가부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고유가 등 원가상승 요인에 의해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품목별 무역수지

(백만불, %)

구 분	2003년			2004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7월 누계			7월 당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수지
디지털전자 수입	74,661	44,448	30,213	55,523	29,742	25,781	3,631
정보통신기기	34,388	9,013	25,375	25,633	5,751	19,882	2,803
○유선통신기기	715	1,233	-518	455	725	-270	-48
○무선통신기기	18,697	2,108	16,589	14,520	1,434	13,086	2,029
- 휴대용전화기	13,355	112	13,243	10,168	55	10,113	1,557
• 위성방송수신기	791	11	780	632	11	621	75
○정보기기	14,977	5,672	9,305	10,658	3,593	7,065	821
- 컴퓨터본체	1,539	989	550	530	611	-81	-33
• 휴대용컴퓨터	1,326	292	1,034	358	261	97	6
• 개인용컴퓨터	213	697	-484	171	349	-178	-39
- 보조기억장치	1,636	921	715	1,088	448	640	94
- 프린터	456	302	154	270	186	84	12
- 컴퓨터용 모니터	5,667	724	4,943	4,585	617	3,968	441
- 컴퓨터부품	5,327	1,760	3,567	3,851	1,085	2,766	373
산업용전자기기	1,474	5,408	-3,934	1,299	4,281	-2,982	-414
디지털가전기기	12,610	3,496	9,114	8,951	2,312	6,639	879
□ 홈씨어터	2,460	605	1,855	1,571	340	1,231	189
○영상기기	5,618	1,036	4,582	4,062	742	3,320	461
- 디지털TV	1,196	109	1,087	882	67	815	119
• CRT TV	96	24	72	59	11	48	7
• LCD TV	278	27	251	201	19	182	25
• PDP TV	373	24	349	261	9	252	33
• 프로젝션 TV	450	33	417	361	27	334	54
- 아날로그TV	527	6	521	247	3	244	28
• CRT TV	457	3	454	213	3	210	26
• LCD TV	53	2	51	30	0	30	2
• PDP TV	0	0	0	2	0	2	0
• 프로젝션 TV	16	2	14	1	0	1	0
- DVDP(VCR 포함)	925	122	803	446	60	386	65
○음향기기	2,108	1,305	803	1,363	824	539	90
- 앰프(기타 컴포넌트 포함)	223	174	49	176	89	87	15
- 스피커	116	200	-84	66	124	-58	-9
- MP3	176	68	108	116	83	33	2
○냉장고	1,099	51	1,048	816	22	794	122
○가정용회전기기	2,285	115	2,170	1,837	75	1,762	154
- 세탁기	636	33	603	426	13	413	58
- 에어컨	1,291	14	1,277	1,116	10	1,106	64
- 진공청소기	319	17	302	263	10	253	36
○전자레인지	597	2	595	246	8	238	37
전자부품	26,189	26,532	-343	19,639	17,398	2,241	363
○기타전자부품	6,654	5,203	1,451	4,563	3,566	997	154
○반도체	19,535	21,329	-1,794	15,076	13,832	1,244	20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39	786	-47	777	626	151	6
○음극선관	1,920	238	1,682	1,177	103	1,074	187
○PCB	891	700	191	708	605	103	5

지역별 무역수지

(백만불,%)

구 분	2003년			2004년			
	수출	수입	무역수지	7월 누계			7월 당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무역수지
디지털전자 무역수지	74,661	44,448	30,213	55,523	29,742	25,781	3,631
○아시아	40,197	3,945	9,252	29,353	21,491	7,862	1,078
- 중 국	11,957	6,314	5,643	9,503	4,910	4,593	681
- 홍콩	7,248	941	6,307	5,121	670	4,451	574
- 일 본	6,289	12,021	-5,732	4,505	8,060	-3,555	-526
- 싱가포르	2,795	3,078	-283	2,148	1,883	265	66
- 인 니	855	270	585	520	121	399	56
- 말 련	2,389	2,084	305	1,475	1,341	134	46
- 태 국	992	742	250	803	520	283	26
- 필리핀	1,724	1,420	304	1,001	867	134	-11
- 대 만	4,359	4,001	358	3,333	3,080	253	39
○ 중 동	2,357	203	2,154	1,661	140	1,521	207
- 사우디	274	0	274	177	1	176	22
○ 유 럽	13,107	4,125	8,982	10,501	2,552	7,949	1,130
- E U	11,453	3,558	7,895	9,004	2,336	6,668	938
• 영 국	2,326	420	1,906	1,697	315	1,382	189
• 독 일	2,384	1,304	1,980	2,829	862	1,967	285
• 프랑스	763	608	155	686	299	387	55
- 러시아	323	14	309	206	8	198	27
○ 북 미	14,866	8,782	6,084	10,736	5,334	5,402	768
- 미 국	14,350	8,566	5,784	10,467	5,220	5,247	735
- 캐나다	515	216	299	269	113	156	33
○ 중남미	2,690	287	2,403	2,210	167	2,043	282
○ 대양주	1,162	99	1,063	804	52	752	126
- 호 주	1,073	93	980	744	49	695	118
○ 아프리카	279	7	272	251	5	246	40